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예수님의 영

성경: 행 16:6-7, 눅 1:35, 빌 1:5, 27, 2:1-9

- I.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 행 16:6-7.
- II.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라는 두 가지 신성한 칭호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A. 이 두 칭호가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 B.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다.
1. ‘성령’이라는 칭호는 주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눅 1:15, 35.
    - a. ‘성령’이라는 칭호가 사용된 것은 바로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위해 사람의 몸을 예비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였다 — 눅 1:35, 마 1:18, 20.
    - b. ‘성령’이라는 칭호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칭호가 주님의 육체 되심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c. 첫 번째 언급의 원칙에 따르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출생과 관계있다.
  2. 신약에서 ‘성령’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 눅 1:35.
- C.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 눅 1:31, 35, 마 1:21, 행 16:7.
1.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 그리고 인간 생활과 죽음의 고난의 요소들도 있다.
  2. 예수님의 영은 그분 자신 안에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생명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 인성을 갖고 계신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며 인생의 고난들을 견디게 하신다.
    - a.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영 안에는 고난의 요소와 박해에 저항하며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 골 1:24, 행 9:15-16, 16:7.
    - b.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기 위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
- D.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누가는 성령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전환한다.

1.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먼저 인간 생활을 사셨고,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 행 2:23-24, 32-33.
  2. 예수님은 하늘들로 승천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 행 2:36.
  3.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은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함축한다 — 행 16:7.
  4. 예수님의 영은 성령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 행 16:6-7.
    - a. 성령은 오직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만을 포함한다 — 눅 1:35, 마 1:18, 20.
    - b.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다 — 행 1:1-3, 8, 2:23, 32, 36.
  5. 예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총체와 완전한 실재화이시다 — 행 16:7.
- E.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듯이,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실재이시다 — 롬 8:9, 행 16:7.
1.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지 못하실 것이다.
  2.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재이자 실재화이신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신다 — 행 16:7.

**III. 예수님께서 부활 안에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계시지 않았던 그 영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영이시다. 오늘날 그 영은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된 인성으로 조성되었다 — 눅 24:26, 요 7:37-39, 행 16:7.**

- A. 우리가 마시는 생수이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시는 이 영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조성되어 계신다.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면 결코 그러한 영이 계실 수 없다.
- B. 인간 본질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은 흐르는 생명수가 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생명의 강이 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인간 본성으로 조성되셔야 한다.
- C. “이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이 있다. ... 우리는 축복의 강들로 우리 안으로 흐르시고, 우리를 통해 흐르시며, 우리로부터 흘러 나가시는 그분을 영접했다.”(앤드루 머리)
- D. 우리는 복음 전파와 교회 봉사와 우리의 매일의 행함과 주님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인성의 영을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 갈 5:22-23, 빌 2:15, 4:8.

**IV. 복음 확산을 위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결정과 선호에 따른 것이거나 사람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어떤 일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다 — 행 16:6-7.**

- A. 그들의 일은 주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과 연관되신 성령에 의한 것이었고(행 16:6),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연관되신 예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다(7절). 사도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지시와 인도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 B.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는지에 달려 있다.
  1. 삼일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바울은 주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과 연관되신 성령과, 그리고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부활과 승천과 연관되신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었다 — 행 16:6-7.
  2.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으로 조성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도를 전파할 수 있었다 — 행 13:26-39, 17:18, 28:31.

3. 그 영계서 우리의 조성이 되신다면, 이때 우리의 일은 이 영의 표현이 될 것이고, 우리는 육체 되신 분으로서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신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4.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공급하는 일을 하며,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 행 9:20, 22, 17:18, 28:23, 31.

## V. 예수님의 영은 빌립보서의 처음 두 장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 A.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본다(12-18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
  1. 이 장은 시기나 다툼 없이 복음을 위해 교통하는 것과 관계있다 — 빌 1:5, 15, 17.
  2. 복음서들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활은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 없는 생활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계는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 없다.
  3. 우리는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 없이 예수님의 영 안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 B. 복음을 위한 교통은 우리에게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빌 1:27).
  1. 우리가 예수님의 영 안에 있지 않다면, 복음을 위한 교통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2. 오직 예수님의 영 안에서만 우리가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3.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 없이 예수님의 영에 의해 복음을 위한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 C. 예수님의 영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할 수 있다 — 빌 2:1-9.
  1. 예수님의 영에 의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다 — 빌 2:5-7.
  2. 예수님의 영에 의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다 — 빌 2:3.
  3. 예수님의 영에 의해 우리는 한 가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 — 빌 2:1-2.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예수님의 영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사역을 수행하는 사도들을 인도하신 것을 말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 이 절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계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복음 확산을 위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결정과 선호에 따른 것이거나 사람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어떤 일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듯이,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실재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지 못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실재, 예수님의 실재화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심한 박해를 받은 사람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넘치는 힘을 가진 한 사람의 영이시다. 그분은 고난을 견디는 힘을 가진 영이실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영이시다.

복음 전파자로서 바울은 외지로 나가 복음을 전파했고 또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영 안에는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고난을 견디는 요소와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기 위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영은 그 안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생명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인성을 가진 사람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인간 생활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

### 성령이심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라는 두 가지 신성한 칭호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두 칭호를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 그리고 인간 생활과 죽음의 고통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도의 사역은 인간 생명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해 수행되는 고난의 사역이었는데,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필요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가는 성령에 대해 말한 다음 예수님의 영에 대해 말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 두 칭호는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성령’이라는 칭호는 주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에 처음 사용되었다. ‘성령’이라는 칭호가 사용된 것은 바로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위해 사람의 몸을 예비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였다(눅 1:15, 35, 마 1:18, 20). ‘성령’이라는 칭호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칭호가 주님의 육체 되심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에 따르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출생과 관계있다.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 안에서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 되시는 것을 가리킨다. 신약에서 ‘성령’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누가는 성령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전환한다.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먼저 인간 생활을 사셨고,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런 후에 하늘들로 승천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은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함축한다.

### 사역을 수행하는 사도들을 인도하심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일을 수행하는 사도들의 움직임이,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본다. 그보다 그 움직임은 주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과 관련이 있는 성령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다. 이 두 신성한 칭호는 복음 전파의 일을 수행하는 바울의 움직임이 옛 시대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지적해 준다. 그것이 옛 시대의 방식에 따른 움직임이었다면,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 언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는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 언

급되지 않는다. 그보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누가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언급한 사실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일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주님의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수행된다. 성령과 예수님의 영은 이 항목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지금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총체이자 최종 완결이심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갖는다.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부활 후에 그리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 영과 동일하시다(고전 15:45, 고후 3:17).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한 성령은 공기 같은 영이신 이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몇 가지 요소들, 곧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구성되어 계신다. 온 우주에서 그분만이 이 여섯 가지 공적을 갖고 계신다. 오직 그분만이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은 자격을 갖추신 이 예수님의 실재화이시다. 예수님의 영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의 총체이시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러한 영,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총체이신 그 영의 지시 아래서 움직였다.

예수님의 영은 유일하게 자격 있으신 분, 곧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자격 있게 되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총체와 실재화이시다.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의 인간 생활을 사시고,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어 이 생명을 번식시키시며, 하늘들로 승천하시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의 영이시다. 사도들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 영은 이러한 예수님의 영이셨다. 이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총체와 완전한 실재화이시다. 이 절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지시와 인도 아래서 움직이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는지에 달려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으로 조성되지 않았고,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조성되었다. 삼일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바울은 주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과 연관되신 성령과, 그리고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부활과 승천과 연관되신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으로 조성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외지로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어떤 종류의 영으로 조성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이 영이 우리의 조성이 되셔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일은 이 영의 표현이 될 것이고, 우리는 육체 되신 분이신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신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공급하는 일을 하며,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2999-3002쪽)*

### 예수님의 영에 의해 혼 안에서 하나가 됨

빌립보서의 처음 두 장은 예수님의 영과 관련되어 있고, 마지막 두 장은 그리스도의 영과 관련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부활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3장과 4장은 부활과 관

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알고”라고 말한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부활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영이다. 빌립보서의 첫 장에서는 복음 전파가 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영은 처음 두 장에서 분명하게 묘사된다. 예수님의 영은 다투지 않으시며, 그분께는 어떤 경쟁심이나 적의도 없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께는 어떤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도 없으셨다. 이 세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1장에서 언급된다. 이 장에는 또한 몇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 ‘한 영과 한 혼 안에 있는 문제’와 같은 것들이다. 어떻게 우리는 한 영과 한 혼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시기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을 볼 때 시기하게 된다. 그리고 경쟁하는 영으로 다투기 시작한다. 비록 우리의 영은 이와 같지만, 예수님의 영은 그러지 않으신다. 복음서들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주목해 보라. 그분의 삶은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 없는 삶이었다. 한 영과 한 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영 안에서만 가능하다.

한 혼이 된다는 것은 주로 한 생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각자가 첫째가 되기를 갈망하고, 어느 누구도 기꺼이 마지막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에 의해 한 혼이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즉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과 한 영과 한 혼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함께 분투할 수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조율되고,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단체적임을 뜻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 안에 있고 한 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분투할 것이다.

빌립보서의 첫 장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이 장은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 없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교통하는 것을 다룬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내적인 기쁨 비움을 주의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몸에서 머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머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과 경쟁이 없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반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주 미미한 경쟁이라도 있을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영 안에 있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을 위한 교통 안에 있지 않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끝나게 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 없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같은 사랑을 가짐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이르렀다.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절을 이해하는 데 삼십 년 이상이 걸렸다. 2절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듯했다. “부디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동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툼과 경쟁은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애정이 있다면, 격려나 신뢰가 있다면, 나를 향한 사랑의 어떤 위로가 있다면, 나와 영의 어떤 교통이 있다면, 부디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2절은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

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간청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한 우정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서로를 향해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전제물로 주님께 부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향해 같은 사랑을 가짐으로써 그의 기쁨이 넘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만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면, 그는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슬퍼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하나(eness)를 잃게 하고, 복음을 위한 교통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 혼 안에서의 하나

2절은 또한 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 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애정과 사랑과 생각과 결정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나는 매우 실지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혼 안에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이나 생각이나 결정에서 하나가 아니라면,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닌 한, 우리는 복음을 위한 교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예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한 교통

3절은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한다. 성도들 가운데서 높은 지위를 바라는 것은 헛된 영광이다.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우리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생각을 낮추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복음을 위한 교통 안에 머무르는 길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교통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이다.

4절에서 바울은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한다. ‘장점’이라는 단어는 ‘속성이나 자질’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귀하게 여기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자신의 장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5절과 6절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빼앗는 일을 하곤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필요한 자격은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첫째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 어떤 형제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로가 되기를 갈망한다. 따라서 그는 장로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장로 직분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감당할 능력이 못 되는 어떤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로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은 그분이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사도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의 사도 직분을 빼앗는 것이다.

7절부터 9절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으며,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음을 본다. 그분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이다.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10절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관계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이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 이 영 안에는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나 빼앗는 것이나 자기 자신의 장점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예수님의 영이다. 우리가 이 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교통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복음 전파는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많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교통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체험하는 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우리가 결코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1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484-489쪽)*